

## KBO 외국인 성적표는? 피렐라·터크먼 '맑음' 푸이그·루이즈 '흐림'

### 프로야구 초반 외국인 타자 기상도

각 팀들의 시즌 출발이 모두 다른 것처럼 외국인 선수들의 초반 기상도 또한 엇갈리고 있다. 팀당 19~20경기씩 치른 26일 현재 KBO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외국인 타자는 삼성 라이온즈 피렐라다.

피렐라는 20경기에 나서 타율 0.380, 30안타, 14타점, OPS 1.000으로 삼성 중심타선을 이끌고 있다. 타율 전체 4위, 안타 공동 1위, 타점 공동 5위다. 삼성 타자들로 범위를 좁히면 모두 1위에 해당한다.

한국 생활 2년차인 피렐라는 지난해 타율 0.286, 29홈런, 97타점으로 재계약에 성공했다. 시즌 막판 발 통종과 컨디션 난조로 우려를 샀지만, 지금까지 모습으로는 조금도 문

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한화 이글스의 새 얼굴 터크먼도 출발이 좋은 선수로 분류된다. 지난 2년 간 외국인 타자의 기량 미달로 가뜰이나 허약한 타선이 더욱 도드라졌던 한화는 올해 모처럼 수준급 선수와 시즌을 소화 중이다.

터크먼의 성적은 타율 0.354, 28안타, 0.167(18타수 3안타)의 득점권 타율로 타점이 4개 불과하다는 것이 육에 타이지만 8차례 도루를 시도해 모두 성공시키는 주루 센스는 팀의 뛰는 야구를 주도하고 있다. 한화의 팀 도루는 25개로 10개팀 중 단연 으뜸이다.

반면 큰 기대 속 입성한 푸이그의 행보는 아쉬움이 남는다. 메이저리그(MLB)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 계약부터 화제를 불러온 푸이그는 타율 0.229(70타수 16안타)로 적응에 애를 먹는 형국이다.

최근 3개로 녹슬지 않은 편지력은 과시했지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23일 KIA 타이거즈전에서는 입단 후 처음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근 5경기 타율 0.320(25타수 8안타·2홈런)로 슬슬 기지개를 켜는 롯데 자이언츠 피터스(타율 0.192·3홈런·10타점)와 달리 또 다른 1할대 외국인 타자 LG 트윈스 루이즈의 침묵은 길게만 느껴진다.

첫 시즌 외국인 선수 상한액인 100만 달러를 받고 LG 유니폼을 루이즈는 전혀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타격으로 팬들의 애를 태우는 중이다.

타율 0.169(65타수 11안타)는 규정타석을 채운 60명 중 59위에 불과하다. 머리까지 짧게 다듬으며 결의를 불태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뉴스스



삼성 피렐라



키움 푸이그

##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전국남녀중별볼링선수권대회'서 입상 쾌거

### 제40회 대한볼링협회장배 대회에서 동메달 획득



고흥군청 3인조(강유라, 이송원, 김동요)

고흥군청 직장운동부 여자 볼링팀이 전국대회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 레드핀볼링장에서 개최된 "제40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

중별볼링선수권대회" 일반부 경기에서 3인조와 5인조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총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여자일반부 3인조전에 출전한 고흥군청(강유라, 이송원, 김동요)은 총 29개 팀

에서 총점2,516(에버리지209.7)을 기록하며 대전광역시청과 구미시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24일 여자일반부 5인조 경기에서는 고흥군청 소속 이미소, 강유라, 남은실, 이혜미, 김동요, 이송원이 경기에서 출전해 총4게임에서 총점 4,114(에버리지205.7)을 획득해 3위를 차지하며 한번 더 동메달을 획득했다.(이송원, 남은선 선수는 전후반 교체)

고흥군청 볼링팀은 대부분 고흥출신 향토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토선수 특유의 단결력과 경기력으로 최근 지난 "제40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볼링대회"입상에 이어 한번 더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함으로써 강팀으로써 떠올랐다.

정연호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감독은 "고흥군수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선수들의 피땀 어린 훈련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중남 전남볼링협회장은 "전날이 좋은 성적을 내게끔 최선을 다해 지도해주시고 우리 고흥군청 정연호 감독님과 긴장되지않고 묵묵히 경기를 치른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량을 맘껏 펼쳐 전남볼링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 장흥군청 육상팀, 창단 후 첫 금메달 수확

### 제51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김장우 선수 세단뛰기 1위



오른쪽 두번째부터 김장우, 윤승찬

장흥군 육상팀에서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금메달이 나왔다.

장흥군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된 제51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장우 선수가 세단뛰기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같은 대회에서 윤승찬 선수가 해머던지기 3위를 차지하며 겸경사를 알렸다.

이번 대회에서 수확한 금메달은 2020년 5월 장흥군청 육상팀 창단 이후 처음 획득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여수 대회에서 아쉽게 2위에 머문 김장우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올해 열릴 예정인 2022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출전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지난 대회에 이어 3위에 입성한 해머던지기 윤승찬 선수도 꾸준한 성적을 내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흥군 육상팀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나주에서 열릴 '2022 나주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메달 사냥에 나설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육상팀 선수들이 스포츠 매카 장흥군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 KLPGA 5승 신고한 유해란, 세계랭킹 36위 도약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5번째 우승을 맞은 유해란이 세계랭킹에서도 재미를 봤다.

유해란은 26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2.54점으로 지난주보다 5계단 상승한 36위에 올랐다.

유해란은 24일 경남 김해 가야 컨트리클럽(파72)에서 끝난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총상금 8억원)에서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시즌 첫 승과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시즌 상금 2억3950만원으로 이 부문 1위로

올라선 유해란은 세계랭킹 36위로 35위의 장하나를 바짝 추격했다. 같은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에 나섰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기권한 박민지는 한 계단 밀린 27위가 됐다.

상위권은 큰 변동이 없었다. 고진영이 여전히 1위를 지킨 가운데 넬리 코다(미국)와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2·3위를 유지했다. 호주 교포 이민지가 한 계단 오른 4위에 안착했고, 김효주는 2계단 떨어진 8위에 자리했다.

## 강백호에 라모스까지 이탈, KT 박병호 혼자 남았다

### 초반 위기 딛고 7위까지 올라...상대 타선 집중 견제 받을 듯

'디펜딩 챔피언' KT 위즈에게 올 봄은 '버티는 시간'이다. 믿었던 타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이제 믿을 이는 박병호만 남았다.

KT는 올해 강백호와 박병호, 헨리 라모스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을 구상했다.

지난해 도루를 제외한 공격 전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강백호를 필두로 새 얼굴 박병호와 라모스가 가세하며 한층 파괴력 있는 타선이 예상됐다.

박병호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9시즌 연속(2016~2017년 해외 진출 제외)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낸 거포다. 빅리그 경력이 있는 라모스는 KT가 신임 외국인 선수에게 쓸 수 있는 100만 달러를 꼭 채워 안길 만큼 기대가 큰 타자였다.

그러나 개막한 지 한 달 여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KT는 단 한 번도 이 클린업 트리오를 가동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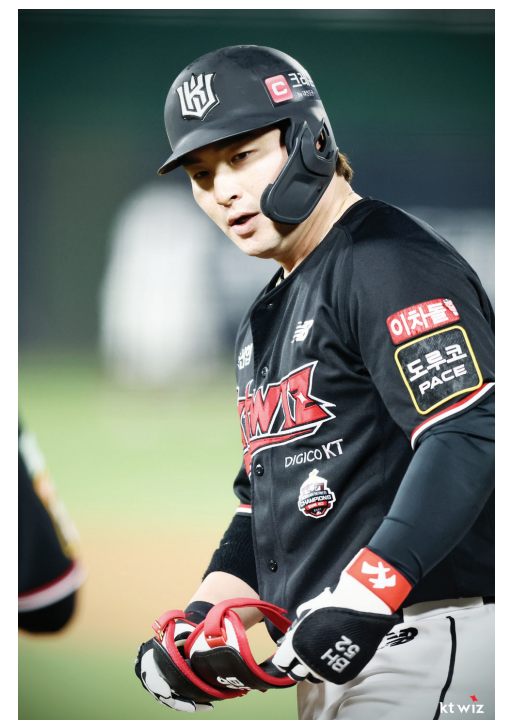
부상 때문이다. 개막 직전 강백호가 새끼발가락 골절로 이탈하면서 자리를 비우게 됐다.

주축 타자가 빠져나간 KT는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즌 초반부터 4연패, 5연패를 당하면서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의 타자가 부상으로 쉬어 간다. 라모스가 23일 NC 다이노스전에서 상대 선발 송병기에 오른 새끼발가락을 맞아 골절 부상을 입었고, 회복에만 최소 4주에서 6주까지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다.

KT가 당초 기대했던 중심 타자 중 이제 남은 건 오로지 박병호 뿐이다.

박병호는 올 시즌 타율 0.270, 4홈런 12타점



을 올리고 있다. 홈런과 타점 모두 팀내 1위다.

강백호와 라모스 이탈로 무게감이 떨어진 KT 타선에서 단연 돋보이는 '거포' 박병호는 이제 상대 타선의 집중 견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통합 우승팀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초반 3승10패까지 처졌던 KT는 서서히 발돋움 드러내면서 8승11패로 7위까지 올라섰다.

그래도 아직 길길이 멀다. 어렵게 되찾은 좋은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박병호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뉴스스

## '돌아온 에이스' SSG 김광현,

### KBO 역대 6번째 140승 정조준

SSG 랜더스의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34)이 개인 통산 140승에 도전한다.

SSG의 선발 로테이션상 김광현은 오는 27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다.

김광현은 2021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진출했다. 메이저리그 진출 직전까지 136승을 올렸던 김광현은 올해 KBO리그 복귀 후 3승을 올리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김광현은 여전히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속구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앞세워 시즌 평균자책점 0.47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일 KIA 타이거즈와의 복귀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15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21일 키움 히어로즈전에 등판한 김광현은 박찬혁에게 솔로 홈런을 맞은 것이 올 시즌 유일한 실점이다.

SSG는 김광현과 이반 노바, 노경은, 윌버 폰트, 오원석 등 안정감 있는 선발진을 앞세워 개막 10연승을 기록했고, 현재 16승 4패로 리그 1위를 질주 중이다. 김광현은 KBO리그 6번째로 140승을 노리고 있다. 140승을 달성하면 송진우(210



승)와 정민철(161승), 이강철(152승), 양현종(147승), 선동열(146승)에 이어 6번째 대기록이다.

하지만 상대는 롯데다. 롯데는 올 시즌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타율(0.417), 홈런(6홈런)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희, 4할에 육박하는 타율을 기록 중인 이대호, 전주우, 안치홍 등이 매서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맞서는 김광현의 통산 롯데전 성적은 압도적이다. 김광현은 롯데전 통산 41경기(선발 37경기)에 등판해 21승 5패 평균자책점 3.42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2019년 마지막 3경기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김광현은 올해 7승만 더하면 KBO리그의 전설 선동열(146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현역 선수 중 최다승 투수는 KIA의 양현종(147승)이다.